

---

발행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발행일 :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 현 명 호

인쇄일 : 2014년 6월 30일

주 소 :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대학원  
성격 및 개인차 연구회 (302동 B107호)

제작처 : 나노미디어(전화: 02-703-7507)

전 화 : 070-4806-3331 팩스 : 02-816-5124

홈페이지 : <http://www.healthpsy.or.kr>

편집장 e-mail 주소 : rhoma777@hanmail.net

편집위원장 : 서경현(삼육대학교)

편집위원 : 강성군(강원랜드) 고영건(고려대학교) 권선중(침례신학대학교) 김용희(광주대학교)

유제민(강남대학교) 이민규(경상대학교) 이인혜(강원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조성근(충남대학교)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한국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하며, 건강심리학회의 공식적 학술 모임의 발표 내용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구독에 관해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로 문의하기 바란다.

---

**Vol. 19, No. 2.**

**June. 2014.**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published by

**b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 per year and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and data.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ports of the proceedings of academic meetings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ews on the profession of Health Psychology, and a list of M. A. theses and Ph.D. dissertation in this area. Inquiries concerning the guidelines of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E-mail : rhoma777@hanmail.net)

Editor : Kyung-Hyun Suh(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Sung-Gun Kang(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Young-Gun Go(Korea University), Sun-Jung Kwon(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ong-Hee Kim(Gwangju University), Jhe-Min You(Kangnam University), Min-Kyu Rhee(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Hyae Yi(Kangwon National University), Mun-Sun Cha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ng-Gun Cho(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

이 학술지는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

---

#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진

회 장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수석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내협력부회장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국제협력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총무이사 조 성 근 (충남대학교)  
교육이사 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홍보이사 최 성 진 (부산메리놀병원)  
학술이사 조 현 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재무이사 심 은 정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장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편집위원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수련위원장 박 준 호 (대전대학교 산업광고심리학과)

선임이사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고 진 경 (송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김 용 희 (광주대학교 심리학과)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학교 교육대학원)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 미 례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센터)

감 사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고 문 김 교 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국장 주 해 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간사 홍 혜 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편집간사 김 선 미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 제 19 권 제 2 호

#### [개관논문]

코칭에서의 마음챙김과 수용-전념 기반 접근법 ..... 손 정 락 / 453

#### [경험논문]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기술훈련이 정서지능이 낮은 대학생의 정서지능,  
대인관계문제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 최 초 룡·손 정 락 / 469

NLP 상담 프로그램이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 정 윤 주·김 윤 주 / 485

자비명상과 마음챙김명상의 효과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 김 완 석·신 강 현·김 경 일 / 509

마음챙김 명상이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의 우울, 불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 서 은 성·김 미 리 혜·김 정 호 / 533

부모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정 기 원·안 귀 여 루 / 549

여성 독거노인의 후회, 자기노출, 원한 및 용서와 웰빙 간의 관계 ..... 서 경 현 / 565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생각과 자아 통제감, 무망감 및 가족지지의 관계  
..... 권 영 실·현 명 호 / 585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  
- 도박 빚 압박감의 매개효과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  
..... 권 영 실·김 현 정·김 소 라·현 명 호 / 603

대학생의 감사 성향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손 솔·서 경 현 / 619

#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생각과 자아 통제감, 무망감 및 가족지지의 관계<sup>†</sup>

권 영 실                      현 명 호<sup>‡</su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아통제감과 무망감이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이와 같은 경로에서 가족의 지지가 무망감과 자살생각을 중재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 생각을 낮출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가족지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DSM-IV 진단기준에 따라 알코올 남용 및 의존 기준에 해당하는 213명을 대상으로 자아통제감, 무망감, 가족지지, 자살생각을 측정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자아통제감이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와 자아통제감이 무망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경로 모두 유의하여 자아통제감에 따른 자살생각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자아통제감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의 중재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아통제감과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지지는 자아통제감과 상호작용하여 무망감 수준을 중재함으로써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알코올 사용 장애자 자살생각, 자아통제감, 무망감, 가족지지

---

<sup>†</sup> 본 연구는 2013년도 9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ICPM 국제학술대회(the 22nd World Congress on Psychosomatic Medicine)에서 포스터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6551, E-mail : hyunmh@cau.ac.kr

우리나라 자살사망률 및 자살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사망원인의 4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통계청(2012)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수는 2012년에 14,160명으로 전년대비 11.8% 하락하였지만 1990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15,566명(1일 평균 42.6명)으로 2000년 대비 9,12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 대상군 및 고위험 집단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원시연, 2010). 또한, 자살 위험집단에 예방 활동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살 위험군을 선별하는 과정과 치료 상담 절차 등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정교하게 개발되어야 한다(남윤영, 2010). 이에 따라 최근 청소년 및 노인층에 대한 자살예방 및 위기대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우울과 알코올 사용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Mann, 2003; Oquendo, Malone, & Mann, 1997; Roy & Linnoila, 1986; Sher, Oquendo, & Mann, 2001). 알코올 의존과 남용은 주요 우울증과 더불어 자살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며 자살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다(Hall, 1999). 전체 자살시도의 50% 이상은 우울증과 알코올남용과 관계가 있을 정도로(Jeon et al., 2010) 알코올 사용 장애군은 일반 집단에 비해 자살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30-40%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였다는 보고도 있다(Wojnar et al., 2009). 만성적 음주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다양한 파괴적 삶의 결과를 야기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Murphy, Wetzel, Robins, &

McEvoy, 1992; Sher, 2006). 실제 자살을 시도한 알코올중독자는 빈번한 직업 교체 및 실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다(Roy, 1999). 만성적 음주로 인해 가족의 지지가 매우 빈약해지고 가정 폭력 및 가족이 해체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데 이는 알코올중독자에게 자살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MaKee, Bonn-Miller, & Moss, 2011). 또한, 알코올 사용이 만성화됨에 따라 뇌의 세로토닌의 농도가 저하되고 활성이 저하되어 공격성과 충동성이 상승하고 이는 자살 위험을 높이게 된다(Sher,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의 상대적 위험도가 높은 자살 고위험집단인 알코올 사용 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고 이후 자살 위기 개입 및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자살생각은 자살에 선행하는 연속적 과정에 있으며 자살 시도와 실제 자살과도 상관이 높으므로(Brown & Vinokur, 2003; De Leo, Buono & Dwyer, 2002; Scocco & De Leo, 2002)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뇌에 대한 물질의 영향을 확인하는 신경학적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 영역은 행동의 자동화 및 자기 통제를 포함하는 복잡한 집행 기능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며 물질 중독자의 다양한 충동적 행동 및 억제 결함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전두엽의 기능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급성적 또는 만성적인 알코올 사용은 전두엽의 기능을 취약하게 하며 이는 통제력의 상실 및 주관적으로 지각된 통제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Michael, 2000; Volkow et al., 2007). 즉, 알코올 사용 장애군의 자살을 고려함에 있어 다양한 삶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

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개인적 지각을 나타내는 자아 통제감(sense of self-control)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 자아 통제감을 상정하였다.

자아통제감(sense of self-control)은 자신의 노력으로 환경의 도전과 방해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Pearlin, Lieberman, Menaghan, & Mullan, 1981) 개인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과 일반화된 믿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97). 개인이 지각하는 통제감은 변화 또는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효능감과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기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자살과 같은 부정적 인지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노력으로 환경의 도전과 방해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지각하는 것은 자살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주관적 지각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 통제감이 떨어지게 되면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 인지추론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아 통제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에 성공적으로 직면하게 됨으로써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andura, 1997; Schwarzer, 1992). 또한, 자아 통제감은 자살 시도의 예측 요인이며(Dieserud, Roysamb, Braverman, Dalgard, & Ekeberg, 2003) 국내에서도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통제감의 독립적 영향이 확인되었다(엄태완, 2007).

알코올 중독과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통제의 소재를 외적으로 지각하였고 무망감도 더 높게 보고했다(Krampen,

1980; Reznikoff, 1982). 가정폭력 피해 여성 중에서도 앞으로 남편의 폭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무망감을 낮게 지각했다(Clements, Sabourin, & Spiby, 2004). 이처럼 개인의 인지적 해석과 경험의 평가는 주어진 상황을 스트레스로 보는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다(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Beck, 1967).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환경과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Seligman, 1975). 또한, 내적인 통제감을 낮게 지각한 개인일수록 우울감을 높게 보고했다(김미혜, 이금룡, 정순돌, 2000; Benassi, Sweeney, & Dufour, 1988). 실패감, 죄책감, 불행감 등으로 경험된 우울감은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서 변화될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대안이 없다고 느껴지는 부정적인 신념인 무망감(hopelessness)으로 발전될 수 있다(Abramson, Alloy, Hogan, Whitehouse, Donovan, & Rose, 1999).

무망감은 '바람직한 결과가 일어날 것 같지 않거나, 혐오스런 결과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기대감'을 말한다(Beck & Steer, 1988).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자살 생각은 극단적인 고통이나 한계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려된다(Lange, 2003). 이때 개인이 미래에 어떤 희망도 없다고 인지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이러한 무망감을 통해서 자살생각은 강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무망감은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매개하고 자살행동과 밀접한 상관을 가진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eck, Steer, Beck, & Newman, 1993;

O'Connor, Connery, & Cheyne, 2000). 즉, 자아 통제감의 저하로 인해 경험된 우울감은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서 변화될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대안이 없다고 느껴지는 부정적인 신념인 무망감(hopelessness)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살에 대한 생각을 증가시킬 것이다.

한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자살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감정조절, 영성 및 신앙심, 삶의 의미, 자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의 개인 내적 요인과 가족응집력, 가족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Appraisal)과 지각된 사회적 자원 및 사회 활동 참여 등의 가족·환경적 요인이 있다(김보영, 2008; 김순규, 2008; 김은정, 2002; 김효정, 정미애, 2010; 모지환, 배진희, 2011; 박재연, 임연옥, 윤현숙, 2010; 박현선, 1998; 서혜석, 2006; 심미영, 김교현, 2005; 이서원, 장용언, 2011; 조하, 신희천, 2009; Abdel-Khalek & Lester, 2007; Harris & Molock, 2000; Taliaferro, Rienzo, Pigg, Miller, & Dodd, 2009).

알코올 사용 장애군은 만성적 음주로 인하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파괴적 결과를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 고립상태에 이르게 된다(이준석, 2011; Mulphy et al., 1992; Roy, 2003). 이처럼 개인의 적응범위를 넘어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에게 가족의 지지는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지지자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지지는 가족에 의한 비공식적 지지로써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나 충고, 가시적인 유형의 도움이나 행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체계이며, 가치 있는 활동이나 사회적 역할을 성취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Desrosiers et al., 2005). 자살에 대한 가족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지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 및 자살 충동 등 정서문제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Palmer, Glass, Palmer, Loo, & Wegener, 2004).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상황에서 가족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상태라면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며(최인, 김영숙, 서경현, 2009), 사회적 지지 중 가족의 지지는 자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보호요인이었다(임수영, 1996). 조성상(2009)은 병원에 입원한 만성질환 노인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 대한 대처 자원으로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가족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각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길순, 2008).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자가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여러 경로에서 자아 통제감, 무망감의 영향을 확인하고, 가족의 지지가 자살생각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대상

서울, 경인지역의 알코올 치료 병원, 지역 알코올 상담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임상전문가가 DSM-IV의 진단 기준에 따라 진단한 결과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결과 알코올 남용 및 의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단, 지능지수가 평균수준 미만인 경우, 대뇌의 기질적 손상이 있는 경우, 축1로 분류되는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한 총 241명 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4명이었으며, 1차 수거된 설문에서 설문을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다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도 함께 제외하여 총 21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13명 중 남자가 180명(84.5%), 여자가 32명(15%), 무응답 1명(.5%)이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만49.22세( $\pm$  10.33)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는 63명(29.5%), 고졸은 104명(48.8%), 대졸 이상은 44명(20.6%)이었다. 참가자의 현재 결혼 상태는 이혼이나 별거 또는 사별이 73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72명(33.8%), 기혼이나 동거는 65명(30.5%)이었다.

연구대상자의 AUDIT 결과 알코올 남용은 8명(3.8%), 알코올 의존은 205명(96.2%)에 해당하였다. 또한 본격적으로 술을 마셨던 총 기간은 10년 이하가 22명(10.3%), 20년 이하 41명(19.2%), 30년 이하 67명(31.5%), 40년 이하 57명(26.8%), 50년 이상 22명(10.3%)이었다.

현재까지 자살시도의 경험을 한 번 이상한 참여자는 무응답(24명)을 제외하고 전체 응답자의 55%(105명)에 달했으며, 그 중 알코올과 관련한 문제로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참가자는 100명으로 자살시도자의 거의 대부분은 알코올과 관련하여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응답했다. 최근 일 년 간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도 무응답을 제외한 201명 중 11.9%(24명)에 해당했다.

## 연구 절차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아통제감, 무망감, 자살생각, 가족지지, 인구통계학적 질문 순으로 이루어진 총 6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 측정 도구

**자아 통제감(Sense of Self-Control).** 자아 통제감(sense of control)은 김미혜, 이금룡, 정순둘(2000)이 번안한 Pearlin, Lieberman, Menaghan 과 Mullan(1981)의 통제력 측정도구(Mastery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7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문항 2개와 부정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부정문항을 역산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제감이 높으며 총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통제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7로 나타났다.

**무망감(Hopelessness).** 무망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광배, 김중술, 오경자와 신민섭(1990)이 번안한 Beck, Weissman, Lester과 Trexler(1974)의 무망감 척도(Hopeless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무망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가족지지(Family Support).** 가족지지는 Cobb(1976)이 개발한 도구를 Kang(1985)이 수정 보완한 가족지지 도구(Family Support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문항 9개와 부정문항 1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가족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신민섭(1992)이 변안한 Reynolds(1987)의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수정하여 사용한 서미순(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SIQ는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4였다.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 알코올 사용 장애로 명명된 기준에 해당하는지 선별하기 위해 1989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개발한 알코올 문제 선별 검사(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최근의 알코올 사용을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의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질문한다. 알코올 의존에 관한 3문항, 해로운 음주에 관한 3문항, 위험한 음주에 대한 4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0점에서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었으며 10문항의 총 점수를 저위험 음

주(0-7점), 고위험 음주(8-15점), 알코올 남용(16-19점), 알코올 의존(20점 이상)으로 구분한다.

## 분석 방법

SPSS for Window 20.0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Chronbach’s  $\alpha$ )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변인 간의 상관을 구하였으며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자아통제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무망감과 가족지지가 각각 매개 및 조절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모델과 상호작용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모델에서 독립변인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변인을 센터링(centering)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가족지지를 고·저 25%로 나누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자아통제감에서 자살생각으로 이르는 인과적 관계를 검토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통제감과 자살생각은  $r=-.51$ 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즉, 자아통제감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 또한, 자아통제감과 무망감 간의 상관은  $r = -.66, p < .01$ 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무망감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은  $r = .44, p < .01$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지와 자살생각은  $r = -.38, p < .01$ 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가족지지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아통제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

자아통제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무망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검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자아통제감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66, p < .001$ . 두 번째 단계에서

자아통제감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1, p < .001$ .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인 무망감이 포함되면서 자살생각에 대한 자아통제감,  $\beta = -.39, p < .001$ 과 무망감,  $\beta = .18, p < .05$ 의 영향력이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3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자아통제감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  $\beta = -.51 \rightarrow \beta = -.39$ , Sobel's  $Z = -6.22, p < .001$ , 자아통제감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무망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아통제감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통제감이 무망감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간접적 영향 모두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통제감에 따른 무망감과 자살생각에서 가족지지의 중재효과**

자아통제감에서 자살생각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평균	표준편차
1. 자아통제감	-				15.07	3.66
2. 무망감	-.66**	-			7.78	6.14
3. 자살생각	-.51**	.44**	-		45.83	16.76
4. 가족지지	.48**	-.41**	-.38**	-	32.05	8.88

\*\* $p < .01$ .

표 2. 자살생각 관련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F	R <sup>2</sup>	$\beta$
1단계	무망감	자아통제감	163.86	.43	-.66***
2단계	자살생각	자아통제감	74.54	.26	-.51***
3단계	자살생각	자아통제감	40.72	.27	-.39***
		무망감			.18*

\* $p < .05$ , \*\*\* $p < .001$ .

가족의 지지는 무망감이나 자살생각을 중재하는 가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가족지지가 자아 통제감이 무망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중재역할을 하는지, 무망감에서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에서 중재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가족지지가 자아통제감에서 무망감

으로 가는 경로에서 중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델 1은 무망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자아통제감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43.7%로 유의하였으며, 모델 2에서는 가족지지를 투입한 결과 모

표 3. 자아통제감과 무망감에서 가족지지의 중재효과

	모델1		무망감 모델2		모델3	
	$\beta$	$t$	$\beta$	$t$	$\beta$	$t$
자아통제감	-.66	-12.80***	-.60	-10.22***	-.61	-10.60***
가족지지			-.12	-2.14*	-.12	-2.12*
자아통제감 * 가족지지					.13	2.58*
$R^2$	.43		.44		.46	
$R^2$ 변화량	.43		.01		.02	
$F$	163.86***		85.62***		60.86***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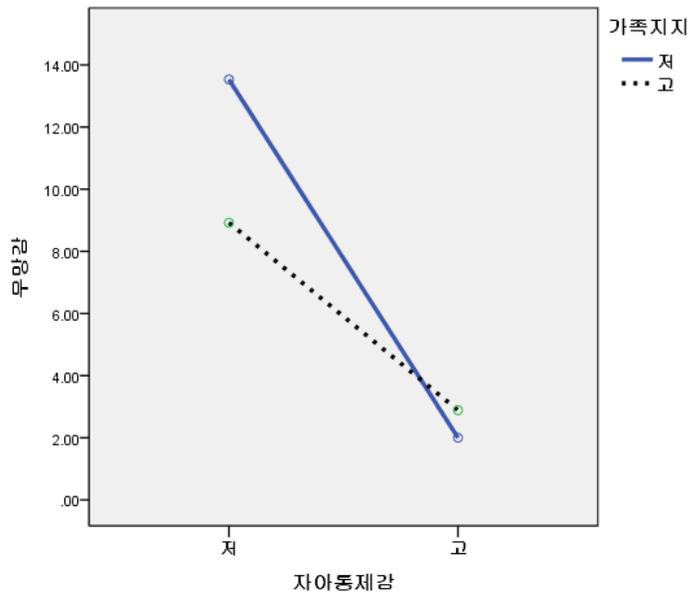


그림 1. 자아통제감과 가족지지 수준에 따른 무망감의 차이

델의 설명력이 44.9%로 모델 1에 비하여 1%증가하였으며, 가족지지는 무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모델 3에서는 가족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고자, 자아통제감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 3의 설명력은 46.6%로 모델 2에 비하여 2%증가하였으며 자아통제감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은 무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무망감에 대한 자아통제감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통제감과 가족지지의 점수대를 기준으로 상위 25%, 하위 25%를 각각 고·저 집단으로 분류하고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은 자아통제감과 무망감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중재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분석 결과, 가족 지지가 낮은 경우,  $F(1,53) = 38.08$ ,  $\beta = -.65$ ,  $p < .001$ 와 높은 경우,  $F(1,56) = 28.95$ ,  $\beta = -.58$ ,  $p < .001$ 에서 자아통제감에 따른 무망감의 영향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  값으로 인한 설명력의 차이로 보아 가족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의 자아통제감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통제감이 낮을수록 무망감이 증가하지만 가족지지가 자아통제감에 따른 무망감의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가족지지가 무망감에서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에서 중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첫 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3가지 모델에 따라 변인을 센터링한 상태에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무망감과 가족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beta = .06$ , n.s., 자살생각에 대한 무망감,  $\beta = -.42$ ,  $p < .001$ , 과 가족지지,  $\beta = -.18$ ,  $p < .01$ , 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무망감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가족지지의 중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지지는 자아통제감과 무망감의 관계에 있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망감에 따른 자살생각의 관계에서는 중재하지 못함으로써 자아통제감에 따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무망감과 자살생각에서 가족지지의 중재효과

	자살생각					
	모델1		모델2		모델3	
	$\beta$	$t$	$\beta$	$t$	$\beta$	$t$
무망감	-.51	-8.63***	-.42	-6.33***	-.43	-6.42***
가족지지			-.18	-2.70**	-.17	-2.68**
무망감 * 가족지지					.06	1.10
$R^2$	.26		.28		.29	
$R^2$ 변화량	.26		.02		.01	
$F$	74.54***		42.02***		28.45***	

\* $p < .05$ , \*\* $p < .01$ , \*\*\* $p < .001$ .

## 논 의

우리나라의 자살문제에 있어 알코올 의존은 우울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Jeon et al., 2010) 알코올 남용 및 의존 집단의 자살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윤명숙, 2011; 박규태, 2012; 윤명숙, 최수연, 2012).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 위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위험 대상에 따른 특성에 맞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원시연, 2010; 남윤영, 2010).

알코올 중독자의 자살시도율은 일반 성인자살률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윤명숙, 2011).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현재까지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5%에 달했으며, ‘그 중 알코올과 관련한 문제로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자’는 자살시도 경험자 중 95.2%로 자살시도자의 거의 대부분은 알코올과 관련하여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일년 간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는 자’도 전체 응답자의 11.9%로 나타났다. 중증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30% 이상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완성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Wojnar 등(2009)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써 알코올 사용 장애군의 자살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살 고위험 대상군으로서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본 연구에서는 중독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통제력 상실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 가족 지지를 상정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알

코올 남용 및 의존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두 가지 경로를 가정하였다. 한 경로는 자아통제감이 낮아질수록 자살생각을 직접 증가시키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통제감이 낮아질수록 무망감이 증가하면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경로이다.

분석결과, 자아통제감이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완(2007)의 연구에서 자아 통제감을 우울에 따른 자살생각을 조절하는 조절변인으로 상정했던 가정과 달리, 자아통제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이 확인된 실제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는 환경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한다고 지각할 경우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아통제감이 낮아짐에 따라 자살생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아통제감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무망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통제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재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무망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의 노력으로 환경의 도전과 방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통제감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은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해진다(Seligman, 1975). 무망감이 우울증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매개하고 자살행동을 촉진하는 핵심요소라고 주장한 많은 연구에 따르면(Beck et al., 1993; O'Connor et al., 2000), 이러한 우울감에서 파생된 부정적 사고는 미래를 향한 취약한 인지 상태인 무망감을 활성화시켜 자살생각을 높이

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아 통제감의 저하로 인한 반복적인 자기 비난, 좌절감 같은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무망감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Salovey & Rodin, 1984).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가 자아 통제감에 따른 무망감과의 관계를 중재함으로써 자아통제감에 따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아통제감이 낮은 집단에서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가족지지를 낮다고 지각하는 집단보다 무망감이 더 적게 나타나 가족지지가 자아통제감이 낮은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무망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변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지지는 아무런 희망 또는 대안이 없다고 느껴지는 무망감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로 인한 자살생각을 중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과 인지적 왜해의 관계에서 친구의 지지가 인지적 왜해까지 가는 경로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반면, 인지적 왜해라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 친구의 지지가 더 이상 자살생각을 중재하지 못한다는 정영주와 정영숙(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 즉,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게 지각된 가족지지는 자아통제감이 낮아짐에 따라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관계에서 무망감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써 작용하지만, 이미 무망감이라는 심각한 절망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자살생각으로 이르는 경로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제한적인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

여 볼 때, 자살에 대한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을 밝히는 연구에서 보호요인은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에서 각각 다른 기제를 가지고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주의 깊은 적용이 요구된다.

가족지지는 자살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임(임수영, 1996; 조성상, 2009; 최길순, 2008)은 분명하지만 추후의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상실과 같은 심각한 상태에 이른 사람의 자살생각을 중재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요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지지가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생각을 조절하는데 있어 무망감 수준을 중재하는 데 그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 알코올 사용 장애자가 많은 경우 이미 깨어져버린 가족 관계에서 전폭적인 가족의 지지를 지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평균 연령이 49.2세 정도로 대부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연령대에 해당하나 이혼이나 별거 또는 사별이 34.3%(73명)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33.8%(72명), 기혼이나 동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30.5%(65명)으로 참가자의 1/3 정도만이 결혼 및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참가자를 가장 많이 지지해 주는 가족원으로 형제자매 23.5%, 부모 22.1%, 배우자 19.7%, 없음 15.5%, 자녀 14.1%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지지해주는 가족원이 형제자매이거나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가족 배경에서 가족지지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만성적인 알코올 사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가족관계 내의 정서적 양가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경우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술을 마셨던 총 기간은 20년 이하가 29.5%, 30년 이하가 31.5%, 40년 이하 26.8%, 50년 이상 10.3%에 이르는 등 본격적으로 술을 마신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8.6%에 해당한다. 술을 본격적으로 마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중독의 특성인 잦은 재발로 인하여 가족이 알코올 사용 장애자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기에는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온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원의 부정적 정서에서 기인하는 취약한 지지감과 더불어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에게 대한 죄책감, 즉, 오히려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주요 변인인 짐이 되는 느낌의 영향은 가족원의 지지가 자살생각을 중재할 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Ribeiro & Joiner, 2009).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생각을 중재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가족의 지지를 상정하였으나 가족 지지는 무망감을 중재하는데 그쳤으며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대안도 느껴지지 않는 무망감을 지각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는 자살생각을 중재해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생각을 중재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가족 지지의 역

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박지원(1985)에 따르면, 가족의 지지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 차원의 하위기능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각각은 자살생각과 관계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게 가족의 지지의 다양한 하위 기능 중 어떤 차원이 자아통제감, 무망감, 자살생각과 관련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탐색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DSM-IV에 의해 축1로 분류되는 정신장애에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였지만 장애 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우울의 영향은 통제하지 못하였다. 우울은 알코올 의존과 공병하는 경우가 많고 자살생각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추후에는 현재 우울 수준을 측정하여 직접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Sher, 2006).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과론적인 설명을 할 때 보다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변인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적 접근 및 종단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우선 알코올 사용 장애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환경의 도전과 방해물을 다루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아통제감이 무망감을 통해 자살생각을 예측하며 무망감 이전의 선행 경로에서 가족지지가 무망감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각자의 자아통제감과 무망감 수준을 잘 평가하고 평가 단계에 맞춰 가족관계를 통한 지지

적 접근을 하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알코올과 중독의 문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매우 가깝고도 시급한 문제이며, 알코올 의존 및 남용 집단은 자살의 고위험군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알코올 중독 집단의 자살에 있어 주요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도출하여 알코올 중독집단의 자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고 판단된다.

미시적 관점으로 본다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을 도출하여 자아 통제감과 이러한 통제감의 낮은 자각으로 인해 유발되는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밝히고 자아 통제감이 무망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더 나아가 변인들 간 관계에서 가족지지라는 보호요인이 어떤 경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미혜, 이금룡, 정순돌 (2000). 노년기 우울증 원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회지*, 20(3), 211-226.
- 김보영 (2008).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66-93.
- 김은정 (2002). 청년기 친밀감 형성과 자아정체감 및 애착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1, 153-172.
- 김효정, 정미애 (2010).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43-50.
- 남윤영 (2010). 자살예방대책관련법 의의와 문제점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인권포럼집7-42*.
- 모지환, 배진희 (2011). 자살행동 영향 요인: 성별, 연령별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2), 121-145.
- 박규태 (2012).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 임연옥, 윤현숙 (2010).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이르는 경로분석: 실존적 영성, 가족의 지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 41(4), 81-105.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1), 23-52.
- 서미순 (2005). 청소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석 (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민섭 (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심미영, 김교현 (2005). 한국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과 발달시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13-325.
- 엄태완 (2007). 노인 자살관련 요인: 무망감과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자아 통제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355-379.
- 원시연 (2010). 자살예방대책관련법의 효과분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인권포럼집*. 43-72.
- 윤명숙 (2011).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음주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8, 113-140.

- 윤명숙, 최수연 (2012). 알코올중독자의 자살시도경향: 이중골레 속에서 살아나가기, 정신 보건과 사회사업, 40(4), 27-56.
- 이서원, 장용언 (2011).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11), 111-136.
- 이준석, 윤명숙, 이분희. (2011).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에 미치는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2(2), 93-107.
- 임수영 (1996).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주, 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조성상 (2009). 병원입원 만성질환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 대한 대처 자원 연구: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검증. 연대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하, 신희천 (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1011-1026.
- 최길순 (2008). 일 농촌지역 노인의 자살생각과 가족지지 관계 연구. 동아대논문집, 30, 77-90.
- 최인, 김영숙, 서경현(2009). 노인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5, 33-56.
- 통계청 (2011). 2011년 사망원인 통계. www.kosis.kr
- 통계청 (2012). 2012년 사망원인 통계. www.kosis.kr
- Abramson, L. Y., Alloy, L. B., Hogan, M. E., Whitehouse, W. G., Donovan, P., Rose, D. T., et al. (1999).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3(1), 5-20.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2), 358-372.
- Abdel-Khalek, A. M., & Lester, D. (2007). Religiosity, Health and Psychopathology in Two Cultures: Kuwait and USA.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0(5), 537-550.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orth Publisher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 Steer, R. A. (1988). *Manual for Beck Hopelessness Scale*.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rop.
- Beck, A. T., Steer, R. A., Beck, J. S., & Newman, C. F.(1993) Hopelessn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clinical diagnosis of depress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139-145.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6), 861-865.
- Benassi, V. A., Sweeney, P. D., & Dufour, C. L. (1988). Is there a relation between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3), 357-367.
- Brown, S. L., & Vinokur, A. D. (2003). The interplay among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The role of depression, poor health, and loved ones' messages of support and criticism.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1-2), 131-141.
- Clements, C. M., Sabourin, C. M., & Spiby, L. (2004).

- Dysphoria and hopelessness following battering: The role of perceived control, coping, and self-esteem.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1), 25-36.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De Leo, D., Buono, M. D., & Dwyer, J. (2002). Suicide among the elderl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1, 226-229.
- Desrosiers, J., Bourbonnais, D., Noreau, L., Rochette, A., Bravo, G., & Bourget, A. (2005). Participation after stroke compared to normal aging.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37, 353-357.
- Dieserud, G., Roysamb, E., Braverman, M. T., Dalgard, O. S., & Ekeberg, O. (2003). Predicting repetition of suicide attempt: A prospective study of 50 suicide attempter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7(1), 1-15.
- Krampen, G. (1980). Generalized expectations of alcoholics: Multidimensional locus of control, hopelessness, and machiavellianism.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4), 1022-1023.
- Hall, R. C., Platt, D. E., & Hall, R. C. (1999). Suicide risk assessment: A review of risk factors for suicide in 100 patients who made severe suicide attempts: Evaluation of suicide risk in a time of managed care. *Psychosomatics*, 40(1), 18-27.
- Harris, T. L., & Molock, S. D. (2000). Cultural orientati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support in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Suicide Life Threatening Behavior*, 30, 34-53.
- Jeon, H. J., Lee, J. Y., Lee, Y. M., Hong, J. P., Won, S. H., Cho, S. J., & Cho, M. J. (2010). Unplanned versus planned suicide attempters, precipitants, methods, and an association with mental disorders in a Korea-bas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7(1), 274-280.
- Kang, H. S. (1985).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reinforcement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on hemiplegia patient's self care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Lange, H. R. (2003). Elder suicide: a selective guide to resources. *Reference Services Review*, 31(2), 175-184.
- MaKee, L. G., Bonn-Miller, M. O., & Moss, R. H. (2011). Depressive symptoms, friend and partner relationship.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 72, 141-150.
- Mann, J. J. (2003). Neurobiology of suicidal behaviour. *Nature Reviews Neuroscience*, 4(10), 819-828.
- Michael L. (2000). "Loss of Control" in Alcoholism and Drug Addiction: A Neuroscientific Interpretation. [http://epublication.bond.edu.au/hss\\_pubs/16](http://epublication.bond.edu.au/hss_pubs/16).
- Murphy, G. E., Wetzel, R. D., Robins, E., & McEvoy, L. (1992). Multiple risk factors predict suicide in alcoholism.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6), 459-463.
- O'Connor, R. C., Connery, H., & Cheyne, W. M. (2000). Hopelessness: The role of depression, future directed thinking and cognitive vulnerability. *Psychology, Health and Medicine*, 5(2), 155-161.
- Oquendo, M., Malone, K., & Mann, J. (1997). Suicide: Risk factors and prevention in refractory major depression. *Depression and Anxiety*, 5(4), 202-211.
- Palmer, S., Glass, T. A., Palmer, J. B., Loo, S., & Wegener, S. T. (2004). Crisis intervention with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following stroke: A model for psychosocial service during inpatient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49(4), 338-343.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Reznikoff, P. T. M. (1982). Perceived peer and family relationships, hopelessness and locus of control as factors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2(3), 141-150.
- Reynolds, W. (1987).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Junior*.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ibeiro, J. D., & Joiner, T. E. (2009).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5(12), 1291-1299.
- Roy, A. (1999). Childhood trauma and depression in alcoholics: Relationship to hostilit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6(2), 215-218.
- Roy, A. (2003). Characteristics of drug addicts who attempt suicide. *Psychiatry Research*, 121(1), 99-103.
- Roy, A., & Linnoila, M. (1986). Alcoholism and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6(2), 244-273.
- Salovey, P., & Rodin, J. (1984).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ocial-comparison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4), 780-792.
- Sher, L. (2006). Alcoholism and suicidal behavior: A clinical overview.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3(1), 13-22.
- Sher, L., Oquendo, M. A., & Mann, J. J. (2001). Risk of suicide in mood disorders. *Clinical Neuroscience Research*, 1(5), 337-344.
- Schwarzer, R. (1992). Self-efficacy in the adoption and maintenance of health behavior. In R. Schwarzer(Ed.),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pp.217-243), Washington, DC: Hemisphere.
- Scocco, P., & De Leo, D. (2002). One-year prevalence of death thoughts, suicide ideation and behaviors in an elderly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7, 842-846.
- Seligman, M. E.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W. H. Freeman.
- Taliaferro, L. A., Rinzo, A. A., Pigg, R. M., Miller, M. D., & Dodd, V. J. (2009). Spiritual wellbe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8(1), 83-90.
- Volkow, N. D., Wang, G. J., Telang, F., Fowler, J. S., Logan, J., Jayne, M., et al. (2007). Profound decreases in dopamine release in striatum in detoxified alcoholics: Possible orbitofrontal involvement. *The Journal of Neuroscience : The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27(46), 12700-12706.
- Wojnar, M., Ilgen, M. A., Czyz, E., Strobbe, S., Klinkiewicz, A., Jakubczyk, A., Glass, J., & Brower, K. J. (2009). Impulsive and nonimpulsive suicide attempts in patients treated for alcohol dependen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5, 131-139.

원고접수일: 2014년 4월 2일

논문심사일: 2014년 4월 16일

게재결정일: 2014년 4월 28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4, Vol. 19, No. 2, 585 - 601

---

#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Self-Control, Hopelessness, Perceived Support from Family, and Suicidal Ideation in Alcohol Use Disorders

Young-Sil Kwon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influence of the sense of self-control and hopelessness on suicidal ideation in alcohol use disorders. The second purpose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erceived support from family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suicidal ideation. The data was gathered from 213 subjects who were all diagnosed with alcohol abuse or alcohol dependency by DSM-IV in Gyeong-gi and Incheon, South Korea. In analysis using SPSS 20.0, we found a direct path from sense of self-control to suicidal ideation and an indirect path from sense of control through hopelessness, to suicidal ideation. Because the two paths were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hopelessness mediated the path from sense of control to suicidal ideation. In tes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erceived support from family,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support from family moderated the negative effect of sense of self-control on hopelessness, but did not moderate the negative effect of hopelessness on suicidal ideation. It suggests that enhanced perceived support from the family can play a protective factor for suicide ideation by moderating hopelessness in alcohol use disorders.

*Keywords:* suicidal ideation in alcohol use disorders, sense of self-control, hopelessness, perceived support from family